

문예극장

삶의 빛나는 한때

김석철 /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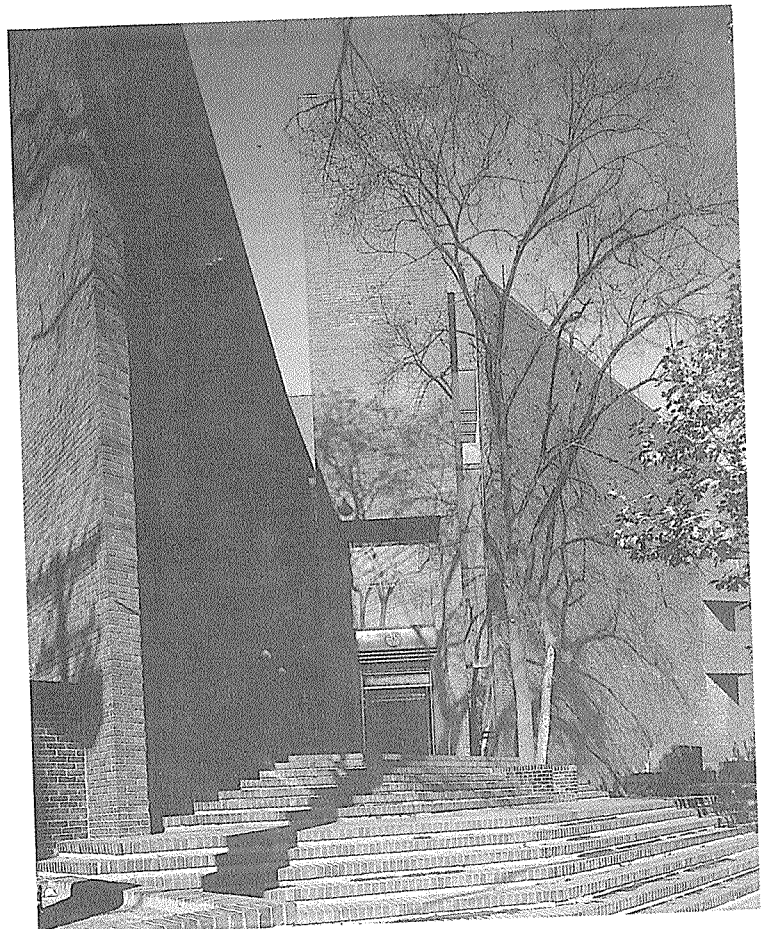
Memory of the Man of Blessed
Cherishing the Memory of
Deceased Mr. Kim, Swoo Geun
by Kim, Suk Chul

마침 우리 사무실이 이분의 대표작 중의 하나인 미술회관과 문예극장 바로옆에 있고 샴터 건물에는 하루에 한번씩은 좋은 커피를 마시러 가면서도 정작 그분에 대해서 쓰려고 하니 어렵다. 이분의 작품들에는 범상한 사람이 닿지 못할 본래인 건축들만이 갖는 높이 평가 되어야 할 국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문예극장과 미술회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구체적인 사용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많고 중요한 마로니에 광장과 내부공간의 전개가 엇갈리고 삼층의 자료관은 전체적인 열거리에서 비껴있고 램프로 이어질 수 있는 옥상은 버려진 것 같다. 문예극장은 무대부분과 뒷무대의 일상적 쓰임이 정작 사용자 주인들로 부터 불평을 듣는다. 그러나 이 두 건물은 서울에서 가장 유서깊은 장소인 마로니에 광장에 매우 아름답게 들어선 건축물이다. 마로니에 광장은 대학로와 낙산과 한 아름다운 정경을 이룬다. 미술회관을 다니면서 이 양반이 이 좋은 자리의 중요한 정경을 건축속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킨 것에 감탄한다. 아래위 두 전시장을 다니면서 혹은 중간 브릿지에서 트여 막히면서 이어진 마로니에 광장의 푸름은 곧 낙산 암벽을 넘어 뒤 푸른하늘로 이어간다. 밤에 문예극장이 문을 열고 불을 켜고 사람들이 수런거릴 때 광장에서 바라보이는 문예극장은 과연 극장답다. 마로니에의 녹색과 붉은 벽들과 불빛이 축제스러운 소리가 날 듯한 감상을 불러 일으킨다. 이분은 건축가가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하는 본질적 재능인 주제에 대한 본원적 이해와 부지의 기능성에 대한 뛰어난 직감력을 가진 사람이다. 마침 예술의 전당일로 열번 가까이 세계도처의 공연장과 전시장을 다녀 보았지만 새로이 선 현대건축 중에 이만한 극장은 없다. 바비칸 센터의 설계자인 프랭크 윗즈도 '이건 과연 좋은 극장이다.'라고 한 본격적 수준의 격이었다. 이런것은 아무나 만들수 있는것은 아니다. 샴터 일층 커피숍에 가면 대학로가 편안히 트여 보인다. 오후 한나절의 약간 편안한 휴계의 나른한 공간이 거기 있다. 물론 동숭동의 네 벽돌 건물들에 비판적 측면들도 없지 않다. 구조방식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를 작은 문제로 볼 수는 없다. 현대건축의

승리에 속하는 바 이념의 배반에 속하는
 위장된 조적조의 결구는 거북스럽기도 하고
 반복적인 조적기법의 반복이 비시대적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분의
 건축들은 우리가 잊고 살던 “삶의 빛나는
 한때”들을 실현한다. 그것은 건축의 가장
 본질적인 한 측면이다. 필요에 의해서
 수요를 만족시키는 건축가가 있고 당장의
 용도를 잘 만드는 사람이 있지만 건축의
 높은 관점에서는 인간의 인간다움, 도시의
 도시다움인 진실의 아름다움을 만드는
 사람을 우리는 작가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분은 지친 서울거리에 삶의 가치와
 산다는 일의 귀중함을 말해온 사람이다.
 아침마다 바이엘 사육과 경동교회,
 해외개발공사를 지나 여기 동승동
 사무실로 오면서 서울거리에 심은 이분의
 아름다운 감성을 매일 좋은 기분으로
 지난다. 바이엘 사육의 청라색 타일과
 스테인레스 수평사시의 각진 구석과
 원통각창은 경사진 가로변에 건축의 한
 즐거운 장면을 연출한다. 경동교회의
 고색스러운 웅벽은 도시 한길로 나선
 종교의 갈등과 성심을 보이는 간극의
 공간들을 보여준다. 길을 비껴선
 해외개발공사의 대각선 벽은 대학로 거리에
 저만큼의 넓음의 여유를 말한다. 현대건설
 사육의 무작스러움으로 벗겨진 공간사육은
 본래의 골목으로 부터 있던 건축적
 프러세션은 많이 파괴되었지만 하나의
 벽, 하나의 개구부에서도 얼마나 건축가가
 많은 말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필요를 앞서 얘기하고 합리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는 많은 사람들도
 있어야하지만 건축의 건축다운 본래의
 가치를 위해서 이분은 오랫동안 외롭게
 어렵고 큰 길을 걸어오신 것이다.
 공간이라는 오래된 커뮤니티를 옆에서 보면
 참 보기가 좋다. 초기의 안국동 시절부터
 서울신문사 별관과 교육회관을 거쳐 잠시
 기술공사가 되었던 후암동 학교건물로
 부터 이곳 원서동 시대에와서 커지고
 풍성해진 이들을 보면서 이런 가족들과
 주위에 모이던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시대의 좋은 이웃인가 하는 생각을
 한다. 자유센터, 워커힐 힐탑바,
 오양빌딩등의 60년대를 지나 기술공사의
 세운상가스러운 좌절과 질곡의 날들을
 지나 공간사육, 우촌장, 문예회관,

마산성당으로 이어지는 70년대를 거쳐
 진주 박물관, 공릉사육 등의 원초공간에의
 집착등에 보이는 작가의 의지는 다양한
 커뮤니티로 부터의 ‘함께 큼’을 실현한
 귀중한 예로 기억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작가들이 자신의 타고난 가능성속에
 몰두할 때 이분은 자기의 주위를 키우고
 마음을 열고 팔을 벌려 자신의 새로운
 마당을 키워온 것 같다. 밖에 알려진 것보다
 내가 아는 그분은 발군의 재능과 과장의
 제스처어들 속에 델리키트한 심선의
 가락을 가진,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분이였다. 그의 건축은 플로트의 다양함과
 설정의 굵은 윤곽이 눈에 뜨이지만
 예상외의 섬세한 디테일의 전개가
 시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위에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하면서도
 자기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고 키울 수
 있었던 천부의 능력은 부여박물관 때 말한
 ‘가진자는 새로운 영향에 부딪혀 더욱
 커지고 가지지 못한자는 그속에 빠져버리고
 만다.’던 말씀을 상기케 한다.
 60년대 후반 윤승중씨를 중심으로 그분을

모시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다들 별개의
 길을 다르게 가면서도 당시의 작업들을
 자랑스럽게 기억한다. 워낙 이양반은
 사람을 끄는 이상한 힘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모든 사람이 실은
 다 가진 ‘가능성의 정점’들을 발견하고
 자극시키는 본인의 ‘사람을 사랑하는 좋은
 심성’에 그 시작이 있는 것 같다. 함께 이
 양반과 일해본 사람은 무슨 하찮은
 일에서의 동반자였어도 그에게 끌린다.
 그러면서 그는 삼십년동안 그들을 키우고
 자신을 새롭게 변신시켜 온 것이다.
 탈레랑이 나폴레옹의 죽음에 대해서
 ‘그것은 사건이 아니다. 단지 뉴스일
 뿐이다’라 하였던 수사를 상기한다. 정작
 이 양반이 떠나시고 나니 나같이
 비판적이었던 사람조차 문득 적막한 감회에
 사로잡힌다. 그는 건축계의 거의
 독보적이었던 별이었다. 그러나 그별은
 항상 함께 빛나는 별이었다.
 공간에 남은
 그분의 동반자들의 계속적인 건투를
 기대한다.



해외개발공사